

즉시 보도용
2026년 8월 5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배스 시장, 남부대기질관리국(SCAQMD) 청문회에서 리니지(Lineage)에 대한
시정명령 발부 촉구
현재까지 리니지를 상대로 약 4천 건의 악취 민원 접수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시장은 오늘 보일 하이츠와 이스트 LA 주민들과 함께 남부대기질관리국(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SCAQMD) 청문위원회(Hearing Board)에 출석해 리니지에 대한 시정명령(Order of Abatement) 발부를 촉구했다. 배스 시장이 청문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스 시장실과 이사벨 후라도(Ysabel Jurado) 시의원실, 제시카 곤잘레스(Jessica Gonzalez) 주 하원의원실은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해 130명 이상의 주민들이 다이아몬드바(Diamond Bar)에 위치한 SCAQMD 본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버스를 지원했다.

청문회에서 배스 시장은 리니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 모든 안내 표지와 홍보 자료를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주민 지원을 위한 이중언어(영어·스페인어) 핫라인 및 피해 지원센터(claims center)를 운영할 것.
- 매주 영어와 스페인어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정화 작업 진행 상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할 것.
- 악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정화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지역사회에 직접 통보할 것.
-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야간 및 새벽 시간대 정화 작업으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할 것.
- 인디애나 스트리트(Indiana Street)를 포함한 주거지역 인근에 상시 악취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할 것.
- 공기청정기, 마스크, 연기·독성물질·악취 제거 서비스, 임시 주거 지원, 재정 지원 등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지원기금을 조성할 것.

다음은 배스 시장 발언 전문: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거의 두 달 동안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온 보일 하이츠와 이스트 LA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일 하이츠의 라인지 냉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단순히 창고 하나가 불에 탄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창고 안에 남아 있는 수천만 파운드의 부패한 식품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파리와 쥐를 비롯한 해충이 지역사회에 퍼졌고, 특히 학교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대기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고객을 잃었고, 많은 가족들이 다양한 신체적·건강상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지난 6월 29일, 라인지 사고 이후 지역사회 복구와 환경 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두 건의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일 하이츠 통합복구지휘본부(Boyle

Heights Unified Recovery Command)를 설치해 관계 기관의 대응을 총괄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일 하이츠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이는 긴급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공중보건 위기입니다.

저는 화재 발생 이후 며칠 간격으로 현장을 방문했고, 매주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주민들이 겪는 피해와 그 악취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평생 이런 악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리니지가 일부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치는 정부 기관과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정명령 발부를 강력히 지지하며, 주민 보호와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추가 조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우선 모든 서면 자료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리니지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매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현재 냉동창고 1호에서 육류를 반출하는 작업처럼 악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 주민들에게 직접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리니지는 상시 악취 측정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전용 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임시 이전은 일주일이나 이주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은 공식 서한을 청문위원회 서기(*Board Clerk*)에게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강제력이 있는 절차를 통해 라니지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과징금 부과, 효과적인 피해 완화 조치, 그리고 완전하고 철저한 정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일 하이츠와 이스트 **LA**의 주민들과 사업주들은 자신의 집과 학교, 일터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청문위원회가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현재 진행 중인 대기질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시정명령을 발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의 최우선 관심사는 보일 하이츠와 이스트 **LA**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오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